

내년 도 교통망확충 모두 제외

정부예산안서 제2경춘국도·춘천~철원고속도·삼척ITX 빠져
도 정치권 “정부 SOC 감축기조와 안맞아” 오히려 축소해 논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내 고속도로와 철도 신규 교통망 사업이 모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경지역과 폐광지역 등 도내 낙후지역 SOC 확충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SOC 사업’인 제2경춘국도(10억원), 춘천~철원 고속도로(10억원), 제천~삼척ITX 예산이 모두 빠졌다.

춘천~철원 고속도로는 부산에서 시작해 춘천에서 끝난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는 교통망이다. 남해안과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남북중단 중심축이지만 장기간 미연결 구간으로 남으며 강원북부권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제천~삼척 고속화철도(ITX)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폐광지역과 강원남부권의 취약한 교통망 조기 확충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자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경춘국도는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량 급증에 따라 국회에서도 조기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안에는 빠졌다. 도는 국회와 공조를 통해 내년도 국회 예산사업으로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대 SOC 사업’ 이외에도 제천~

삼척고속도로(10억원), 강릉~제진철도(10억원) 사업도 정부안에서 빠졌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계속사업을 제외한 내년도 도내 신규 교통망 확충 사업은 전무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SOC 감축 기조와 맞지 않다’며 강원도 교통망 확충 사업 축소를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기현(원주을)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도정협의회에서 “정부의 SOC 관련 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도 현안 사업 상당수가 SOC 사업으로 돼 있다”며 도 정책을 비판했다. 18일 열린 도·더불어민주당 예산협의회에서는 “정부 기조와 다른 것을 강원도에만 해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해 도 관계자들로 부터 빈축을 샀다. 이성현기자

‘강경연’ 올림픽 운영재원 총당 앞장

1차 모금캠페인 10월까지 진행
현재 5개단체서 1000만원 기부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 최돈진)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재원 총당을 위해 모금캠페인을 전개, 현재 확정된 기부액이 1000만원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170여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운영재원이 3000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는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 최근 이사회

를 열고 도내 경제단체, 협동조합,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후원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번 캠페인은 1차로 10월말까지 진행되며 22일 현재 도내 5개단체에서 기부희향서를 통해 1000만원의 기부액이 마련됐다.

기부희향서를 보낸 단체는 강원도아스콘조합(이사장 최돈진·500만원), 강원도레미콘조합(이사장 이성열·300만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지회장 정경인·100만원),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회장 성광용·50만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지회장 박경규·50만원) 등이다. 신관호